

"페이커, 김선형 뜯다" SKT, 스포츠 유튜브 채널 '스크라이크' 오픈

기사입력 2020-01-23 08:50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e스포츠 스타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국내 프로농구 올스타에 선정된 최준용 선수와 리그 오브 레전드 경기를 펼친다. 국가대표 농구 선수인 김선형 선수는 직접 유망주들에게 농구를 가르쳐준다.

SK텔레콤은 승패, 종목, 프로와 아마추어 간 경계를 초월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종합 스포츠 유튜브 채널 '스크라이크(SK-Like)'를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e스포츠, 농구, 야구, 펜싱 등 SK텔레콤이 운영 및 후원하는 각종 스포츠를 중심으로 축구, 핸드볼 등 SK그룹이 운영하는 종목과 탁구, 배드민턴 등 생활 스포츠까지 아우를 예정이다.

'스크라이크'는 경기 하이라이트 혹은 선수 인터뷰를 넘어 스포츠 팬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선보인다. 야구 선수와 골프 선수가 50m 떨어진 목표물을 맞추는 승부를 펼치고, 프로 농구선수들이 일반인과는 농구 대결을, 프로게이머와는 게임 대결을 하기도 한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기반 화질 개선 기술 '슈퍼노바'를 통해 오래된 명경기를 고화질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자사 ICT기술을 접목하기로 했다.

'스크라이크' 운영 수익금의 일부는 지적발달장애인 운동 선수를 위해 활용된다. 또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콘텐츠를 적극 발행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스크라이크' 론칭을 기념,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스크라이크' 페이스북을 통해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2명에게 손흥민 선수 소속 팀의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SK와이번스 2020시즌 시즌권, SK나이트 1층 좌석 이용권 등도 경품으로 준다.

SK텔레콤의 오경식 스포츠마케팅그룹장은 "SK텔레콤 행복스포츠 실천의 일환으로 '스크라이크' 채널을 열었다"며 "앞으로도 SK텔레콤은 스포츠를 통해 고객에게 행복을 전달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 ▶ 2020년 신년운세·사주·무료 [토정비결](#) 보러가기
- ▶ 네이버에서 [아시아경제 뉴스](#)를 확인하세요. ▶ 놀 준비 되었다면 드루와! [드링킷!](#)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277&aid=0004611163>
